

#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여명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 장 소 : zoom							
<b>참석자 명단</b>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2020	이름	배**
	학번	2020	이름	정**	학번	2020	이름	정**
	학번		이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도서] 나혜석, 글쓰는 여성의 탄생 / 나혜석 지음 ; 장영은 엮음</p> <p>[토의 내용 요약]</p> <p>책을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을 중심으로 책 내용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음. 자유 토의 형식으로 나혜석 시대의 페미니즘이 어떠한 것인지, 현재 우리 사회와 어떠한 점이 같고 다른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함.</p> <p>토의 후에는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최소 하나의 과제를 수행해오도록 지도하였고. 팀원 모두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음.</p> <p>1.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p> <p>[1-1]</p> <p>너무 비참한 운명은 왕왕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반역케 합니다. 나는 거의 재기할 기종이 없을 만치 때리고 욕하고 저주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필경은 같은 운명의 줄에 얽히어 없어질지라도 필사의 쟁투에 끌리고 애태우고 괴로워하면서 재기하려 합니다. (197p)</p> <p>이 대목은 당시 나혜석이 이혼을 할 적에 가해졌던 핍박과 질타가 얼마나 심했는지 나타냄과 동시에, 그의 굳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남편 김우영과 그의 집안 또한 나혜석에게 잘못된 것이 그 실상이나. 김우영은 남성, 나혜석은 여성이었기에 오롯이 나혜석에게만 수많은 멸시가 가해졌다. 이러한 착잡한 현실에도. 나혜석은 '필사의 쟁투에 끌리고 애태우고 괴로워하면서 재기하려 합니다'라는 구절처럼,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의 강인한 의지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나 또한 나혜석과 같은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p> <p>[1-2]</p> <p>"여자가 잘 나면 못 써"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실 이 책의 내용 하나하나가 공감이가고, 마음에 남았지만 유독 저 말이 기억에 남는</p>							

것은 아직도 저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인 통념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다. 결혼 시장에서 최고의 여성은 교대나 사범대를 나와 교사를 하면서 아이를 잘 양육 할 수 있고 외형적으로 아름다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외형 상관없이 집안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요즘 날에도 그러하다. 책을 읽으며 지금이 저 때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 변치 않은 것 또한 많다는 생각에 착잡하였다.

[1-3]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나이다. 죽는 일은 섭사외다. 한번 결심만 하면 뒤는 극락이외다. 그러나 내 사명이 무엇이 있는 것 같사외다. 없는 길을 찾는 것이 내 힘이요, 희망을 만드는 것이 내 힘이 있나이다.」 -나혜석, 이혼고백장 中-

모임을 가졌을 당시에도 말했듯이, 비교적 최근 들어 읽었던 글은 대부분 건조한 문체의 논문 위주였고 문학 작품은 거의 읽지 않아서 그런지 나혜석의 작품은 감정적으로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았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하고 슬픔, 분노 등이 극에 달한다기보다는 담담한 문장에 담긴 것들이 아주 강렬하게 내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대부분 나혜석과 같이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고 만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나혜석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도망치지 않았다(물리적인 의미로도, 비유적인 의미로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혜석은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고, 희망을 찾아다녔었다. 나는 나혜석의 행적과 업적만 알고 있을 때는 그를 내몬 상황에 안타까움만 느끼며 무의식중에 그를 둘러싼 주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직접 작품을 읽고-그것도 이 대목을 읽고 나서는 특히- 그를 깊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역시 그와 같이 설령 궁지에 몰리더라도, 상황이 나를 따라주지 않더라도 나의 신념을 곳곳이 지켜내며 '나'를 잃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나혜석에 비하면 아주 나약한 인간이지만, 조금이라도 그를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1-4]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위 문장이 꼬집고 있듯 적잖은 남성들은 여전히 인형을 원한다. 정서적 पार्ट너가 아니라 자신이 부릴 수 있는 노리개가 되기를 여성에게 바란다. 백 년이 흘렀지만 그러한 남성들의 자세는 견지하다. 우린 일그러진 당시 풍습과 역사를 비판하지만 대개 현실은 변함이 없다.

2. 나혜석이 살았던 시대의 삶과 현재 여성의 삶(본인의 삶도 가능)을 연관 지어 생각해보시오.

[2-1]

지금과 그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모성에 대한 숭상화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현 사회에도 여성이 임신을 하면 퇴사를 종용 받는 경우가 있고, 채용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이익은 은연중에 ‘여자는 결혼을 하면 그만 둘 거다.’, ‘애는 여자가 키워야지’, ‘남자가 집안의 기둥이다.’ 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나 또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여자는 취업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여성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위축되었던 경험이 있다.

[2-2]

나혜석이 이러한 작품을 쓰게 된 당시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러나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나혜석과 함께 살았던 여성들보다야 아주 조금 더 숨통이 조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나 그때 존재하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하면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에게 좀 더 엄격하게 들이 밀어지는 도덕적 잣대와 모성애를 향한 낭만적인 시선... 어느 하나 사라진 것이 없다. 오늘날 여러 여성 연예인이 저지른 실수를 향한 대중적인 타박만 봐도 알 수 있다. 분명히 예전에 비해 변화는 있다.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합리한 차별은 차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꾸준히, 길게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2-3]

불과 육년 전에 모 가수가 부른 ‘예쁜 나이 25살’ 노래 표제를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할 때, 외려 그들에게 욕이 향했다. 2001년 작 ‘엽기적인 그녀’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걸파워’, 페미니즘 열풍을 이끈 것은 만연한 사실이다. 역대 로맨틱 코미디 4위에 등극했다. 그러나 그 후 엽기적인 그녀의 플롯을 모티브 한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했을 때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 당시 이미 미국은 한국보다 남녀평등을 이뤘다. 한국의 그녀(전지현 역)와 견우(차태현 역)의 관계는 미국에서 센세이션 하지 못했다. 어쩌면 나혜석이 서구에 유학을 떠났던 당시 그가 느꼈을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더 나아간 세계를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막상 자신이 속한 세계로 회귀했을 때의 참담한 심정을 نن지시 짐작해본다.

3. 책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사건(혹은 문장)을 밝히고, 페미니즘 시각에서 비판해보시오.

[3-1]

나는 모성이 여성의 본능이며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잘못되었다는 식의

비평에 대해 비판하고 싶다. 모성이란 정말 여성의 본능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모성에 대한 숭배는 여성을 갉아먹고 괴롭게 하였다. 하지만 모성은 사회적으로 주입되는 도덕적 규제일 뿐이다. 실제로 아이를 출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한 번에 어여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성은 기름으로 학습되는 것이고 남성의 부성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성의 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아이에게 온 힘을 쏟지 않는 여성을 비정상적이라고 여기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여성의 소임으로 두어 여성을 구속해왔다. 그 외에도 여성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낙태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로 규정짓기도 하였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모성의 숭배를 그만두고, 모성 또한 학습되는 것이고 부성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2]

「“이년, 이때 자빠져 자니.”

주인마누라는 영애 혼자 누워 자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잡아 벗기고 잡아서 뚜드리고 소리르 높여 외친다.

“이년, 한나절까지 자빠져 자고, 해다 주는 밥 먹고, 밤낮 책만 들여다보면 옷이 나니 밥이 나니? 이년 보기 싫다. 어디로 가 버려라.”

아“아이구 아이구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년, 너같이 잘난 년이 잘못된 것이 무엇 있겠니.”

“.....”

“이년, 너같이 잘난 년은 나는 보기 싫다. 썩 어디로 가 버려라.”

“어디로 가요.”

“아무 데로나 가지. 너 연애하는 서방에게로 가렴.”

“없어요.”

“이년, 나는 너를 사람 되라고 고등여학교까지 고우를 시켰더니 지금 당해서는 후회막급이다.”

“.....”

“이년, 에미 말 듣지 않는 자식 무엇에 쓰겠니. 심청이는 제 몸을 팔아서 그 아버지 눈을 띄우지 아니했니. 나와 너는 아무 상관 없는 사이다. 오늘 지금이라도 곧 나가거라.”

또 뚜드린다.」 -나혜석, 어머니와 딸 中-

나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와 딸 중에서 주인아주머니가 하는 여러 대사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아직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고 있었던지라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여성은 너무 많이 배울 필요가 없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야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아무래도 이런 인식은 ‘여성은 혼자서 자립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아주 오래된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앞으로 태어나고 자라날, 우리의 뒤에서 따라올 후대의 여성들에게 아주 해로운 인식이다. 많이 배우고 생각함으로써 (페미니즘 외의 것을 포함한)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인식이 아예 그 길목의

시작부터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도적으로는 ‘거의’ 여성의 배움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없다. 남은 것은 사람들의 인식, 즉 우리의 머리에 뿌리 깊게 박힌 생각이다. 나는 이런 편견이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자라날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득 남동생의 대학 입학금을 위해 그 위의 장녀를 포함한 누나들의 대학 진학을 포기시키거나 그들의 생계비를 밀어 넣기도 한다는 일을 모 커뮤니티에서 건너 듣고 크게 기함했던 경험이 떠오른다. 이런 끔찍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배우고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희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여성들이 ‘금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3-3]**

책에 상대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시인 이광수는 저자에게 마음을 표했는데 거절당했다. 그것에 앙심을 품은 이광수는 그 후 그녀의 작품을 말도 안 되는 연유로 폄하하고 그녀를 모독한 것이다. 만일 그가 나혜석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했다면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에 발을 들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20 년 10월 31일

참가자대표 : 김\*\*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여명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2020	이름	배**
	학번	2020	이름	정**	학번	2020	이름	정**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도서]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 민지형 지음</p>							
	<p>[토의 내용 요약]</p> <p>토의 키워드 : 연대, 풍자, 블랙코미디, 공감</p> <p>책을 읽고 인상 깊은 구절과 이 책의 좋았던 점을 중심으로 토의하였음. 책 내용을 바탕으로 ‘페미니스트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남자 페미니스트는 여자 페미니스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기도 함.</p> <p>토의 후에는 토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과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고. 다음과 같음.</p> <p>[토의 활동] 인상 깊은 부분과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 서술하기</p> <p>[1]</p> <p>“우와, 대단하네. 멋있다.”</p> <p>“엄청 힘들 거야.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고. 퇴직금 물뺏해서 가는 거라 뒤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누구 말처럼 독거노인으로 죽을지도 모르고.”</p> <p>그녀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쿡 찢리면서도 그나마 농담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ㅎㅎ, 겸연쩍게 웃다가 내가 말했다.</p> <p>“근데 정말 솔직히 그런 생각하면 무섭지 않아? 나중에 남편도 없고 애도 없으면 외롭지 않을까?”</p> <p>“그 대신 내가 있겠지. 잘은 모르겠지만.”</p> <p>내가 있을 거라고…. 그녀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p> <p>“갑자기 뜬금없는 애긴데,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도 집에서 결혼 때문에 압박 주니까, 친구들한테 너네는 결혼을 왜 했냐고 물어본 적 있거든? 근데 결론이 뭐였는줄 알아? 그거 말곤 달리 할 일도 없어서였대. 가끔 진짜 내가 왜 사나 싶다.”</p>							

“그럼 한 번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지. 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남들이 원하는 거 말고 니가 원하는 거.”

“근데 그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힘든 일이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헤어지게 된 것이 아쉽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내내 머리가 긴지 짧은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 깨달았다고 한들, 내가 앞으로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

인상 깊은 구절이랍시고 골라왔건만 또 여느때와 다름이 없이 구절이라고 하기엔 너무 긴 문장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아무래도 인상 깊은 구절이 아니라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은 “그 대신 내가 있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소위 ‘한남’이라고 칭하는 남성들 또한 가부장제의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그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고 있는, 분노뿐만 아니라 동정 또한 받을 만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하고 아내를 가지고 귀여운데다 자신을 닮은 아이를 갖고… 기껏해야 성욕을 채우고, 당연하게 인류의 절반이 외모 가꾸기와 치장하기 외에 어떤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지 외면하고.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란 어떨까. 그 따위 것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으면 숨이 턱 막히는 인생이란 어떨까. 소설 초반에서 주인공이 시위 현장에서 맞닥뜨린 그 ‘간절함’이 존재하지 않는, 느껴볼 일 없는 인생이란 어떨까. 나로서는 잘 상상이 가지 않는다.

가부장제의 타파는 여성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성별과 결혼의 제약을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구하는 길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미 답습한 가부장제의 파편까지 싸그리 없애기엔 아직 너무 먼 길을 두고 있다. 어쩌면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머리를 짧게 치고 나서도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인지 은연중에 가늠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후대를 위해서, 라는 거창한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그런 당연한 수순을 밟지 않더라도 그곳에 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웃음을 터뜨리며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는데 생각보다 감상을 쓰자니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났다. 가볍게 읽고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정말 훌륭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없이 추천해줄 수 있는 페미니즘 도서라고 생각한다!

## [2]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성폭행은커녕 여자를 때린 적도 없다. 데이트 비용은 거의 내가 내고, 집에도 잘 데려다준다. 근데 왜 나까지 싸잡아서 욕해? 왜 나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 솔직히 메갈은 그냥 ‘여자 일베’라고 생각한다. 내 또래 남자들은 다 비슷할 거다. 아니, 남자

뿐만 아니라 생각이 똑바로 박힌 여자들도 그럴 거다. 그녀들의 주장엔 논리는 없고 감정뿐이니까. 권리만 주장하면서 의무는 안 하려고 하니까. 차별하지 말라면서 보호는 받으려고 하니까. 남자들도 살기 힘든데, 별로 손에 쥘 것도 없는데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생떼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 책은 전형적인 ‘한국남자’의 생각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보면서 그 전형적인 생각들에 화도 많이 났고 답답함을 느꼈다. 주인공의 생각에 혼자 비판하고 욕했는데 특히 이 부분은 내가 가장 욕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정말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논리가 없는 걸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생떼와 같은 감정뿐이라고 치부해 버린 것은 아닐까? 과연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 똑바로 박힌 여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잣대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여성이 아닐까? 모두가 ‘no’를 외치는 상황에서 ‘no’를 외친 사람은 자신이 말한 답이 정답인 줄 알며 ‘yes’를 외치는 사람을 잘못되었다 여긴다. 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는 안 하려고 한다? 의무를 다할 만큼의 지위를 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남자들도 살기 힘들다고?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지? 젠더 논쟁에서 갑자기 논점을 흐리지 말기 바란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남자들도 힘들다”는 말은 반박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유를 쓰면서 혼자 발끈해서 주저리했다... 어쩌면 작가가 직접 비판하는 것보다 이러한 잘못된 것을 전시함으로써 독자가 직접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다. 이 얼마나 우아한 옛맥이기(?)인가!! 그런 의미에서 재키 플래밍의 <여자라는 문제>를 추천합니다.

### [3]

(192p)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상하고 유난스러운 거면 어떡하냐 싫은 거야.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님네, 난 정말 불쾌하고 끔찍하고 싫었는데.”

페미니스트 여성은 끝없는 자기검열과 마주한다. 페미니즘을 ‘예민성’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현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무언가로부터 맞서 싸우고, 페미니즘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나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무척 치욕스럽다. 분명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도대체 왜.

책을 읽으면서 1살 터울인 혈육 생각이 많이 났다. 소설 속의 남주인공 처럼. 내가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를 ‘상처를 받아서’, ‘피해의식 때문에’라고 생각하여 안타깝고 불쌍히 여긴다. 내가 법원 앞으로 처음 시위를 갔다 온 날, “그 시간에 차라리 알바를 해서 나 맛있는 거 사줘.”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그의 표정을 또렷이 기억한다. 분명, 그의 말과 행동에는 악의가 없었다.

그는 자주 나를 위해 진심어린 말을 해준다. 그는 사회에서 착하고 자상한 남자. 어쩌면 특정 누구에게는 ‘유니콘남’으로까지 치부될 것임이 분명하다. 정말 남자치고는 팬찮은 편이니까. 성인지적 감수성이 좀 말라비틀어졌지만. 뭐 어때, 남자인데. 아마 지금도 앞으로도. 그는 그렇게 살



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나는 어쩐가. 나는..이제 그렇게 못 산다. “착각하지 마. 그건 그만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냐. 난 절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272p)” 여자 주인공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여전히 가스라이팅 범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지만. 페미니즘 동아리도, 지금 하는 북클럽도. 꼭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무언가 답이 나오겠지.

#### [4]

"하지만 태아한테는 안 좋아, 기형아의 원인이라고. 결혼하기 전까진 어떻게든 끊게 해야 할텐데."

남성의 시선에서 쓰인 글이라는 점을 배제해도 왜 이 책이 계속 끌끄러울까... 계속 생각해봤지만, 가장 제대로 된 답변은 저 짧은 문장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전 여자친구였던 그녀와 만난 건 낙태 합법화 시위였고, 그녀는 그 곳에서 직접 여성의 자유를 외치고 있었다. 자신은 비혼주의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주기적으로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이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 하고, 시가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말. 주인공의 마인드가 마음에 안 들었음과 동시에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 남자들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른다'. 이 책이 불편했던 이유는 너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리 여성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외쳐도 남성들은 여성들이 외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 '몰라서 그래.', '악의가 없어.'라고 하기에 여성은 지금까지 많은 살해를 당해왔고, 인권 침해를 당해왔으며, 억압받고 살아왔다. 이게 단순히 '몰라서'라는 한 마디로 해결 될 일일까?

'모든 법은 피해자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느낄 때가 많다. 그리고 더 이상 법이 피해자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 '악의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기에.

"너 니가 무슨 대단한 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나 본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세상 안 바뀌어!"

"최소한 나는 바뀌겠지."

그렇다고 한국 남자들이 정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일까? 많은 여성이 모였던 몰카규탄시위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한국 여성이라면 잊을 수 없겠지. 그 때 하늘을 빨강게 물들였던 팻말의 문구를 기억한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고 울지 마라. 네가 바뀌었다.'. 하지만 내가 바뀌어가는 그 순간에도 광화문 외각 카페 유리창 너머로는 몰카 시위를 찍는 남성들로 가득했다.

이런 시위를 하고,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는 순간에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을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다.

"결국 내 도움을 필요로 할지도 모를, 내가 보호해 줘야 하는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너네 도움따위 필요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진하게 느꼈다. 나는 남성의 도움 없이 혼자 자립하고, 성공하는 여성이 되어야겠다고. 어떻게 보면 화를 돋우기도 했지만 나의 야망을 키워준 책이기에 이 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두서 없이 쓰느라 글이 많이 이곳 저곳으로 튕 것 같지만 이 썸에서 마무리 한다.

[5]

'마음 같아서야, 남자입장에선 '노콘'으로 하고 싶지, 하지만 실랑이하면 분위기 깨질 테고, 일단 조심은 해야지. 어라, 근데 그녀가 계속 결혼 안한다고 버티면 그것도 방법이겠는데?'

124p의 해당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책의 주인공 여남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허구의 인물이라기엔 우리 일상에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다. 여성들은 스텔싱 범죄에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에 있어서도 온전히 자신이 결정 할 수 없도록 사회에 강요 받는다. 이렇듯 여성에게 임신이란 온전한 기쁨이라고 표현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포되어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는 임신이 나의 일이 아니고, 그저 여성을 소유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연애 관계에서 임신을 하였다고 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여성에게는 창녀가, 남성에게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그저 하루 밤의 실수로 치부되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늘 품고 있는 불안은 남성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며, 여성의 삶은 결국 남성의 입맛대로 짜여지는 도구라는 사회적 인식과 일부 남성들의 사고 방식이 저 대사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착잡하고 충격적인 마음에 해당 문장을 선정하였다. 낙태죄의 완전 폐지, 동일 사건 동일 처벌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2020 년 11월 14일

참가자대표 : 김\*\*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여명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2020	이름	배**
	학번	2020	이름	정**	학번	2020	이름	정**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도서]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 김은실 엮음, 신경아 외.							
	<p data-bbox="507 786 710 817">[토의 내용 요약]</p> <p data-bbox="507 831 1393 1032">책 내용을 바탕으로 8개의 파트를 나눠 토의하였음. 각자 자신의 경험과 읽었던 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였고.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고 경청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의의와 연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음. 북클럽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눔으로써 토의를 마쳤으며,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p> <p data-bbox="507 1126 646 1158">[토의 내용]</p> <ol data-bbox="507 1211 1393 2045"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507 1211 1393 1592">1. '여성'의 범주에 관하여 <ul data-bbox="507 1256 1393 1592"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의 차이</li> <li>•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 연대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트랜스젠더 여성/ 젠더와 섹스)</li> <li>• 트랜스젠더 담론 형성의 부족</li> <li>•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긴머리, 화장, 치마)</li> <li>• 젠더적 프레임을 타파해야 함</li> <li>• 부분적 연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됨</li> </ul> </li> <li data-bbox="507 1637 1393 2045">2. 잠재적 피해자, 무해한 존재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ul data-bbox="507 1682 1393 2045"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미니즘은 여성을 피해자로만 치부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현 사회에서 '페미니즘 = 피해의식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는가/피해자성에 대하여)</li> <li>• 피해의식이라고 칭하는 것 -&gt; 성인지적 감수성의 결여, 전형적인 가해자의 의식, 사건을 축소 시키고 피해자를 입막음 시킴.</li> <li>•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용어 사용에 대하여</li> <li>• 남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책임이 있으므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li> <li>• 피해자를 다룰 때 신중해야 함</li> </ul> </li> </ol>							

• 시선공간(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공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 대하여 -> 여성이 피해자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은 옳지 않음.

### 3. 여대의 존립 이유

- 속명여대 입학 사건 / 강남역 살인사건
- 여대의 안정성과 연대에 대하여 (여성의 공간 사수)
- 영페미니스트의 행동강령 - 탈코르셋과 4비(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
- 급진주의(래디컬),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부족주의
- 대항적 공공성

### 4. 코로나19와 재난의 불평등 (재난은 과연 누구에게나 평등한가)

- 코로나 19이후 여성의 삶  
(가정폭력, 가사와 돌봄 노동의 급증, 감염위험, 일자리.해고와 강제 휴직 / 여성에게 요구되는 다중의 역할에 대하여)
- 긴급재난지원금(일상성 회복을 경제 회복과 동일시/ 세대주한테 주는 게 과연 옳은가)
- 지원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기득권, 남성, 50대)
- 코로나 19와 여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요인은 생물학적이기 보다는 사회학적이다/ 여성 노동자로서의 위치/ 왜 여성들이 특정 직업에 몰려있을까)

### 5. 방역과 감시 사회의 키스와 섹스

- 이태원 코로나 (자극적인 기사, 현저성 효과 - 어떤 행동이나 원인을 설명할 때 가장 눈에 띄거나 두드러진 정보를 강조해 생기는 오류)

### 6. 디지털 성범죄

- N번방 사건은 신종 범죄인가('국산 야동' 담론)  
-> 그 이전부터 존재,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 딥페이크 영상 제작
- 무엇이 이러한 범죄를 재생산 시키는가  
(여성을 소비해온 남성 문화에 관한 총체적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
- 남성이 여성을 다뤄온 시각이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음  
-> 여성의 신체를 성적판타지, 성적대상화 해왔음, 문학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한남 문학, 젓가슴 등의 용어 사용,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신격화 함.)

### 7. 성폭력

- 발생확률과 기회를 관리하는 것에 그침 - 성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위치시키고자 했던 페미니즘의 노력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음
- 미셸푸코: 성범죄 예방의 개인화 - 성폭력 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닌 확률과 기회 차단에 관한 문제라는 합리성을 강화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피해와 2차 가해의 근본적 차이 (2차 피해: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구성하려는 관점과 노력 / 2차 가해: 특정 가해자 개인과 이에 대응하는 개인으로 치부)</li> <li>• 호신용 스프레이, 몰카 탐지기 -&gt;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강조, 여성의 돈을 착취하는 구조를 재생산(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li> </ul> <p><b>8. 나쁜 페미니스트 담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li> <li>•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세릴 샌드버그: 체제의 변화보다 여성의 개인적 선택과 자기계발을 강조</li> <li>• 빼앗긴 파이 되찾기 위해서는 나쁜 여성이 되어야 한다?</li> <li>• 나쁜 페미니스트가 되라, 너가 ㅇㅇ해라 -&gt; 제도적 확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강요하는 건 위험할 수 있음, 개인에게 부담주기.</li> <li>•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li> <li>• 똑같은 여성은 존재하는가</li> </ul>
--	--

2020 년 11월 28일

참가자대표 : 김\*\*